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

(여호수아 6:1-27)

여호수아 장군 막사에 둘러앉은 참모회의는 진지했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놓고 전술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 그 곳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백출했을 것입니다.
- 결사대를 조직, 성벽을 기어 넘어가 침투케 하여 닫힌 성문을 열자.
- 요새화된 성을 포위, 완전 봉쇄하여 자멸케 하여 항복 하도록 하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총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의 사령관 되시며 최고 전략가 되시는 하나님의 작전에 의존하기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왕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2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왕사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명령이 시달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략이나 전술이라기 보다는 어린아이들의 전쟁놀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이 이상한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실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단 강을 건넌 후 그토록 소원하던 가나안 입성을 앞에 놓고 그는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마귀와 접전할 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대항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적 지략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언제나 오늘이나 분명합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면 사단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문을 닫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받았지만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 백성들은 하루의 일과에 대해 당일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중으로 돌아온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미건조한 행진을 하며 며칠 동안이나 성을 돌았지만 성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성을 7번 돌자 비로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때 이 같은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작전 계획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거나 속히 응답이 없다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악마의 요새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수는 내 속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는 내 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어느 모퉁이에도 사단 마귀는 높은 성벽을 쌓고 성도를 조롱하고 시험하며 넘어뜨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로 받고, 받은 말씀을 순종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 10:4-5).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 12:11).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리고 성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고 요새처럼 여기는 난공불락의 권세, 재력, 건강, 공산주의도 언젠가는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교활한 마귀와 접전할 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대항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적 지략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언제나 오늘이나 분명합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면 사단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문을 닫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하나님편에 서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하고 순종하며 거짓과 불의의 자리를 떠나 진리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침묵하라

“너희는 의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10절).

말해야 할 성을 돌면서 백 만 명이 넘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나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돌면 돌수록 난공불락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말 하는 것을 기도인 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참 기도인 것입니다.

2. 순종하라

“믿음으로 철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히 11:30).

순종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상한 믿음, 개발된 은사, 성도가 높은 인격과 덕을 쌓을 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되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 것에 대해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수해 당한 이웃을 위한 긴급구제

무너진 교회와 침수된 가옥에 우선

우리교회 구제위원회(위원장 윤봉준 장로)는 연이은 폭우로 인해 가옥과 식량, 의류 등 모든 것을 잃고 폭우가 쏟아지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수재민을 돕기 위해 지난 27일(목) 긴급구제를 실시하였다.



우하며 주님의 사랑을 빠르게 실천하고 있는 서울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에 전해진 수재의연현금은 마침내 다음날인 7월28일(금)에 수해지역을 총회에서 방문할 예정이고 8월1일(화)에는 수재지역 125개 가옥에 도배와 장판을 다시 하는 지원사업을 벌이게 되어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긴급구제는 수재의연현금 일천오백만원(1,500만원)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전달하고, 육군 제3985부대 새생명 교회(이경현 목사 시무)의 지붕 복구비로 5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날 총회사무실에는 구제위원장 윤봉준 장로와 위원 박두영 장로 두 분이 방문하여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총회는 이웃의 고난을 안타까

한편 이날 총회에서 밝힌 총회소속 교회들의 피해 상황은 7개 노회 산하 19개 교회이며 마을 자체가 흔적이 없이 부서진 곳이 많아 총회에서는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3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8월 첫 주부터 등록 받는다

<제3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주제: 기도와 찬양목회

기간: 8월21일(월)~10월23일(월) 10주간

일자	제1교시	제2교시 강의제목	강사
8/21	(오후 2:00~3:30) 마태복음 연구: 이종운 목사(서울교회)	신약에 나타난 기도	유상섭 교수(총신대)
8/28		구약에 나타난 기도	김의원 교수(총신대)
9/4		한국교회 부흥과 기도	김인수 교수(장신대)
9/11		기도응답과 식별	유해룡 교수(장신대)
9/18		예수님의 기도생활, 명령	김정복 박사(WMC)
9/25		예수님의 기도 방법	김정복 박사(WMC)
10/2		찬양예배의 모델	조숙자 교수(장신대)
10/9		예배와 찬양	설삼용 목사(안양제일교회)
10/16		한국찬송가	민경배 박사(한국교회사학연구원)
10/23		역사21세기 찬송가	문성모 박사(서울장신대)

제13학기 슬픔경로대학

일자	과목	강사
8/24	노인의 자신있는 삶	조영주 교수(극동대학)
8/31	노환과 돌봄	장옥화 선생(사회복지사)
9/7	식품과 노인건강	이민호 집사(경희대 농학박사)
9/14	노인의 레크레이션	서석정 선생
9/21	믿음의 증언	손동희 권사(순양원 목사 딸)
9/28	노인체조	오강숙/오경숙 집사
10/5	건강한 노년을 위한 '웃음 삼계탕'	성길용 선생(아기레 기독교도 봉사회장)
10/12	행복한 삶, 복된 죽음	김선숙 선생(은촌노인복지관 음악치료사)
10/19	회해와 용서	이정옥 선생(서울YMCA 위원)
10/26	경로잔치	

제20학기 서울성경대학

과목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요한계시록	월 오전 10:00-11:00	한상은	602
소선지서3권	화 오전 6:00-7:00	이태훈	602
누기복음	목 오후 7:30-8:30	장석남	602
역대기	금 오전 6:00-7:00	정수길	602
교사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이태훈	609
교구일교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정수길	607
찬양대양성반	주일 오후 1:30-3:00	윤영국	601

제4기 세계선교대학

일자	강의주제	담당
8/21	선교학 개론	한국인 교수(장신대)
8/28	세계선교 역사	한철호 선교사(선교한국 상임총무)
9/4	한국의 선교와 개교회	손운탁 목사(중곡동 교회)
9/11	총회선교정책과 현황	신방현목사(총회세계선교본부총무)
9/18	선교와 인류	김영동 교수(장신대)
9/25	선교의 유형들	김태정 목사(HOPE 본부장)
10/2	선교정탐의 이론과 실제	문상철 교수(한국선교연구원장)
10/9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배중혜 선교사(인도네시아선교사)
10/16	누가 전문인 선교사가 되나?	김태연 박사(GPI 원장)

제7기 결혼예비학교

일자	강의주제	담당
8/20	성경적 결혼관	이규정 목사
8/27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위치	주원순 선생
9/3	신혼의 성스러운 성	이운진 권사
9/10	결혼과 재정관리	김금준 집사
9/17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박국실전도사

신간안내

이종운 목사는 새번역 주기도 · 사도신경 해설을 필그림 출판사에서 국판으로 출간시켰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라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구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동일시 되는 놀라운 기도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해하기 쉽고 문장이 평이하며 난해한 교리를 부당없이 읽을 수 있도록 집필된 본서는 새번역의 의미와 배경까지 설명하고 있어 성도들의 필독서로 추천한다.

장로 수련회

8월15일(화) 안산공대에서

우리 교회는 각 부 여름수련회 행사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8월15일(화) 안산공과대학(이사장 장인원 집사)에서 1일 수련회로 장로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새로 선임된 선교사 후보들이 함께 참여한다.

호산나 학교

여름캠프자원봉사자 모집

8월16일(수)~8월28일(월)까지 13일간

호산나 학교는 개교 후 첫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자립심을 키우고 정서함양을 위한 여름캠프를 갖는다.

이번 여름캠프는 8월16일(수)~8월28일(월)까지 13일간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에 위치한 청소년수련마을보람원에서 열리며 옆에서 함께 도울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자원봉사 모집 분야 및 인원은 비디오 촬영 가능하신 분 1명(남녀구분 없음), 장애학생 캠프활동 지원 2명(남자)이다. 여름철 호산나 학교 여름캠프에서 자원봉사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호산나 학교로 하면 된다.

호산나 학교: 02)558-7166

제12기 서울주부대학

일자	과목	강사
8/22	예술가곡과 성가곡	김정희 교수(한국종합예술원)
8/29	신앙과 가정	서명철 목사(서울교회)
9/5	웃음치료와 건강	한광일 원장(한국웃음센터)
9/12	가정을 깨우는 성품교육	이영숙 교수(밀알유치원장.단국대)
9/19	효과적인 자녀교육	이두포 교수(숭실대)
9/26	행복한 가정생활의 원리	이두포 교수(숭실대)
10/3	개천절	
10/10	칠보공예의 실제	박서준 집사(안양한국전통공예연구소)
10/17	선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용남 목사(WMC 대표)
10/24	아외수련회	

만민에게 전도

한국장로교 농아인선교 60주년기념 선교대회

임규현 목사(에바다부 지도)

장마로 인해 여름답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는 지난 23-26일 청양 송의청소년수련관에서 한국 장로교 농아인선교 60주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농아인선교회에 소속된 농아인교회와 농아부 38개 교회가 연합하여 참석하였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대회 마지막날인 26일 오전10시에 서울교회 이종운목사님께서 특강하시기로 하였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려 무사히 도착하시기를 모두가 기도드려 다행히 무사히 도착하셔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한 특강을 수화통역으로 들을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련회 내내 통합교단 농아인 교역자들이 새로운 주기도문 및 사도신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터라 기대도 되었고 특강을 위하여 정리한 파워포인트를 통하여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해 자세한 특강에 모두 이구동성으로 은혜 받았다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농인교회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주기도문 및 사도신경을 아직 사용하고 있음은 새로운 주기도문 및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번 특강때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 사도신경 책자도 각각 선물로 받고 많은 것을 배우고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며 각 교회 농인 목회자들이 앞으로 새로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인도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부족한 제가 선교대회 준비위원장으로 맡으면서 선교대회 마지막 날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해 깨닫게 함으로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특강을 맡아주시는 이종운 목사님과 전국에서 올라온 교역자님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은혜 풍성한 선교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천국시민양성-중등부수련회초대의글

하나님 부르심에 ...

이승의 집사(중등부 교사)

중등부는 오는 7월 31일(월) ~ 8월 2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주제로 단순한 행사를 뛰어 넘어 학생들 개개인이 강렬하고 뜨거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2006 여름수련회를 갖습니다.

이번 중등부 여름수련회는 우리 학생들의 지적, 영적 수준과 평소 관심사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선택강좌를 도입하고, 멀티미디어에 친숙한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영상자료를 준비하는 등 학습의욕과 재미를 높여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친구와 이성문제, 과중한 학업에 대한 부담감등 그들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내몰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종운 목사님은 둘째 날 전체특강을 맡아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며, 이틀간의 저녁집회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풍성한 영적 양식과 구체적 삶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될 2006 중등부 여름수련회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 전도학교를 수료하고

전도는 우리의 몫



이경화 집사 (1교구)

민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 남편을 만나 1993년에 결혼하여 1남 1녀를 둔 저는 시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교회 앞으로 옮기면서 교사로 봉사하였고 다락방 식구들과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주님께 죄송한 마음, 빛진 마음이 들었고 뭔가 제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님께서 70인 전도대 중보기도자로 봉사하시면서 전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소 전도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던 저에

게 이를 계기로 전도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느꼈던 주님에 대한 빛진 마음, 뭔가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이 여태껏 예수님 믿으면서 한 영혼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한 것임을 이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다락방장님으로부터 4월부터 18기 전도학교가 열리는데 같이 다니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심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저는 머뭇거리다가 주님께 진 빚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갚겠다는 마음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전도학교의 교육내용은 총12주 과정으로 장석남 목사님의 말씀공부 중 특히 피플 퍼즐 세미나 수업은 사람의 서로 다른 네 가지 기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으로 저와 성격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습을 통해 전도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그 분들은 시간과 물질을 바치며 전도할때 세상일로 근심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100% 사람100%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전도 실습을 한 후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도 답답하고 한심하여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껏 믿으며 나는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었나?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믿게 된 것을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 했던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애뜻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나? 스스로 반문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전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전도학교에 들어와 직접 보고 깨닫고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복음을 먼저 믿게 된 우리 모두의 몫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이와 같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도해 주신 목사님과 전도학교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 카자흐스탄 단기선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정동호 집사

1.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2.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3. 사역보다 팀원이 먼저 하나되게
4.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5.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경인 집사

1. 짧은 교육 기간이지만 언어습득의 지해를 주셔서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2. 선교팀 모두 뜨거운 기쁨과 문화에 잘 적응하여 건강할 수 있도록
3. 건축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홍일성 집사

1.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팀이 목적을 이루길.
2. 선교사님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3. 대원모두 섬기는 자세로 임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선교여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소의 권사

1.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을 향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부족하나마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2. 카자흐스탄에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3.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잘 건축할수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서울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만민에게 전도 - 카자흐스탄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를 마련하며...

성도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일성 집사 (단기선교팀 총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선교팀은 카자흐스탄 단기선교를 위해 선교대학 과정과 자체교육을 통해 영적인 준비를 하며 한편으론 자비량으로 가는 선교이기에 물질적인 과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항공편도 어렵고 비싼편이라 청년 지원자들에게는 부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의 제반 경비조달을 위해 기도속에 바자를 준비하며 선교팀은 초



조한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에 필요한 물질을 주실거라는 믿음이 성도님의 후원과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자와 각 기관을 통해 후원해주시고, 또 선교구좌로 후원해주시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현재의 교회 건축과 성도님으로 받은 사랑을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베푸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천국시민 양성 - 유년부 성경학교를 마치고

예수님의 경전을 배우는 어린이

오주영(유년부 교사)

날씨가 맑게 개였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듯 쏟아붓던 비는 온데간데 없고, 맑은 하늘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대성리에 가기로했던 초등부의 걱정도, 서울 숲을 가기로했던 유년부의 고민도, 아이들이 많이 오지 못할까봐 노심조사하던 유치부, 유아부의 불안함도 한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느끼며 시작하는 복된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경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찬양으로, 때로는 울동으로 배울 수 있어 아이들은 더 즐거웠습니다.

평소에는 말씀에 흥미없어하던 아이들도 발그레한 얼굴로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맑은 날씨에 힘입어, 계획되

었던 모든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소요소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없이는 진행 될 수 없었던 일정들이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소리없이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주의 수련회

중등부 여름수련회는 7월31일(월)-8월2일(수), 양주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에바다부 여름수련회**는 7월31일(월)-8월2일(수),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각각 열린다.

대안학교 초등학생 모집

8월3일까지 접수, 9월4일(월) 개교

호산나 학교는 오늘 9월초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학사일정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된다.

초등학교 3-5학년예 재학 중인 장애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게 되며 8월3일까지 접수 마감한다.

동정

- 교역자 하기 휴가: 이태훈 목사 (대행) 이규정 목사
- 이사: 민병환 집사 배경옥 집사 가정(1-29) 대치3동 973-17 T. 564-2064
- 승진·발령: 이대중 집사(9교구)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신명 성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 주간식당 봉사: 스테반회(7월30일) 권사회(8월6일)
- 금주의 식사 제공: 배현돈 집사·고광미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20분
	3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 수련회가 은혜 충만한 성회 되도록
2. 카자흐스탄 교회건축, 방글라데시 유스호스텔 건립 위하여
3. 호산나 복지법인과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4. 새로 번역된 주기도·사도신경 한국교회가 사용토록
5. 북한의 신앙 자유와 복음화된 통일조국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